

# 권산의 기적

영리시정  
열린군산


10 2023  
제318호





 **보름달처럼 밝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어원을 가진 추석(秋夕)은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넉넉하고 사랑 가득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04 기획특집

-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
-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 활동

06 군산의 가을

- 풍경 따라 걷다 보면 얻게 되는 힐링

08 군산의 인

- 우리 지역 기부왕은 누구일까요?
- 든든한 우리네 이웃을 소개합니다
- 군산을 지키는 사람들 <군산재난상황실>

12 군산 고향사랑기부제

13 우리 동네 이야기

14 리포터 소식

15 의회

18 시정알림

20 문화 공연 알림

22 시간여행축제





##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지난 7월 20일 이차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되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과 입주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특화단지 구성에 필요한 인허가

##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



군산새만금신항만 관할권 사수를 위한 해상 집회

군산어민과 항만 관계자 700여 명이 군산새만금신항만 관할권 사수를 위한 해상 시위에 나섰다.



여원을 담은 10만 시민 서명부 전달

군산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서명부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정책관에게 전달하며 합리적 결정을 촉구했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신속처리,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반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최근 1조 2,000억원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LG화학·화유코발트, LS그룹, GEM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중국(GEM)+에코프로머티리얼즈+SK온 합작법인) 등은 물론, 이미 에코앤드림(양극소재), 대주전자재료(음극소재), 천보BLS, 덕산테크피아(전해질), 성일하이텍(리싸이클링) 등이 입주 계약을 완료하였다.



군산 새만금의 용지 확장성과 투자진흥지구 등과 같은 장점들이 기업들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급부상하면서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의 신흥메카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의 염원을 모아 이뤄낸 쾌거다.



무더웠던 여름, 그보다 더 뜨거웠던! 새만금을 지키려고자 하는 군산시민들의 이야기



정부세종청사 앞 대규모 집회

1천여 명의 군산시민이 새만금 동서도로, 군산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새만금 정치공세 규탄 성명

정부의 새만금사업 전면 재검토 및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결정에 항의하는 '새만금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 풍경 따라 걷다 보면 언제 되는 힐링

고즈넉한 가을  
선선한 바람을 따라  
발걸음 내키는대로  
한걸음 한걸음 걸어도 좋고  
잠시 쉬어가도 좋다



## ● 임피향교 ●

조선 태종 3년(1403년) 축산리에 창건되어  
숙종 36년(1710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세웠  
다. 대성전은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95호  
로 건축사적으로 연구가치가 많은 건물이다.

## ● 연지심터 ●

팔성정, 노성당 건물과 함께 임피현청의 부  
속 건물로 왕버들나무가 주위에 빙 둘러 있  
으며 임피 현령을 거쳐간 관리들의 공덕비가  
세워져있다.

## ● 청암산 ●

옥산면과 회현면에 걸쳐 있으며 구불4길 코  
스 중 하나. 해마다 가을에 청암산 구슬외축  
제가 개최되고 인근 청암산오토캠핑장은 도  
심 속 캠핑장으로 사랑받고 있다.



① 임피면 임피향교길 46



② 임피면 동헌길 36



③ 옥산면 옥산리 683



◎ 불주사 (나포면 장상리 836)

● 임피역 ●

1912년 건립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 중 하나로 수탈의 아픈 역사를 지닌 역이다. 시실리광장, 연못, 오폐, 전통우물 등이 있어 추억과 낭만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 임피면 서원석곡로 37

● 이영춘 가옥 ●

1920년경 일본인 대지주 구마모토가 지은 별장으로 서구식과 일본식, 한식의 절충양식 건물로 유명하다. 국내1호 의학박사 이영춘 박사가 사용해 더욱 가치를 지닌다.



◎ 동개정길 7

● 금강하구둑 ●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을 하나로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1,841m의 길이로 20개 갑문과 방조제 1,127mrk 1990년 완공됐다. 인근에 금강미래체험관이 있다.



◎ 성산면 성덕리 487-14

# 우리 지역 기부왕은 누구일까요?

올해 열린 제57회 대통령야구대회에서 37년만에 우승을 차지해 ‘군산’의 명성을 다시 한번 전국에 알린 군산 상일고 (옛 군산상고)에 3천만원의 장학금과 1천만원의 야구부 후원금을 전달한 (주)대운산업개발 함경식 대표.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따뜻한 경영 나눔을 강조하며 실천하는 데 앞장서 온 그는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군산지역 개인기부자 중 최대기부자다.

회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만 해도 1억원 이상을 기부해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한 그는 전문경영능력을 겸비한 기업인으로서 회사를 건실하게 성장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열린 2023년 전북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Q** 기부를 실천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A**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부도로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책임과 의리’를 생명처럼 알았던 가치관으로 견뎌냈더니 회사가 기적적으로 일어섰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준 분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고, 사업을 반석 위에 올려 놓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Q** 연탄봉사를 해마다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연탄은 연료비를 아껴야 하거나,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외지, 혹은 시골이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건재한 난방 수단입니다. 추위에 취약한 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집안에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Q 나눔 실천 못지않게 인재양성과 교육에도 큰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A** 제가 나온 모교에 대한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군산지역 학생들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힘이 되고 싶어 군산교육진흥발전재단에 꾸준한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장학사업을 비롯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니 뿌듯한 생각이 들고, 학생들이 자라서 본인들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Q 군산지역 기부왕이 되신 소감과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나눔은 제 행복감이 커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부왕이라는 부담스러운 타이틀을 주시니,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더 많이 돌아봐야 할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산지역에서 희망 나눔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길 바랍니다.



## 튼튼한 우리네 이웃을 소개합니다



군산 수송동 한 공원에서 지난 8월, 해충 방제에 쓰는 소독기에 불이 나 옆에 있던 오토바이까지 번졌다. 이를 본 시민이 119에 신고하고 소방관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중학생이 소화기를 들고 화재가 난 곳으로 달려가 소화기를 들고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했다.

이 학생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동산중학교 3학년 정유민 군.

정 군은 화재를 목격한 후 곧바로 150m 떨어진 인근 아파트 경비실에서 소화기를 빌려 불난 곳으로 달려가 불을 끄기 시작했으며 그가 불을 끄기 시작하자 몇몇 시민도 힘을 합쳐 화재 진압에 힘썼다. 군산시는 불을 초기에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은 정 군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용기 있는 대처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 군산을 지키는 사람들 군산재난상황실



군산에서는 올 여름 60년만에 발생한 역대급 폭우로 도로 및 주택, 농작물 등이 침수되고 토사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상이변으로 많은 폭우가 예상돼 빗물받이 설치를 늘려왔고, 수시로 배수로를 정비하며 폭우 대비 작업을 실시했으며, 침수위험이 높은 지하차도 및 범람위험이 있는 저수지는 폭우 당시 전면통제하면서 전 직원을 동원해 위험상황에 빠르게 대처한 결과라는 평가다.



## 비가 오나 ♪ 눈이 오나 ♪ 바람이 부나 ♪

공무원들에게 있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비상근무'다. 재난이 일상화된 가운데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각종 천재지변에 따른 재난, 재해를 대비하고자 49개과 27개 읍면동은 각 부서마다 매일을 책임지는 비상근무자가 편성돼 있고, 낮이든 새벽이든 하루 24시 내 상황전파 메시지가 울리면 담당자는 즉각 비상근무에 돌입하게 된다. 재난 상황에 맞는 응대는 물론 현장 대응 등 각 부서별 매뉴얼에 맞춰 임무에 임한다. 이 모든 재난 안전의 종합적 컨트롤타워는 안전총괄과다. 시민 안전의 최전방으로 365일 하루도 불이 꺼지지 않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상황실은 화재·화학·교통·산재·산불, 그리고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등 모든 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상황이 접수되면 즉시 시민의 생명·재산 피해 발생을 파악하고, 피해 확대 우려를 판단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긴급 재난문자 발송 및 재난 예·경보방송 등을 활용해 시민에게 알린다. 재난상황실은 방재안전직을 포함해 본인의 상시업무를 가진 일반공무원들이 교대근무를 선다. 비상근무로 업무 과중이나 피로를 호소하는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재난은 '대비태세'가 중요하다는 걸 공무원들 모두는 공감한다. 요즘처럼 자연·사회 재난이 너무 많아 예측도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도 인재라고 쉽게 얘기할 땐 속상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비상에 충실히 근무하고 있고, 대비를 위해 많은 것을 계획한다.

비상근무가 일상이 됐다는 안전총괄과 황동현 직원은 "재해가 발생하면 언제든 비상근무에 돌입해 시민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역시, 한 가정의 아빠이자 엄마이고 귀한 아들이며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시민들께서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 주신다면 큰 힘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 내가 사랑한 도시, 군산의 발전에 초석이 되길

## 나와 군산을 잇다

군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전국에서 1,300건이 넘는 군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였다.

탤런트 김성환씨는 태어난 고향 군산을 위해 기부뿐만 아니라 군산시 홍보대사가 되길 자처했고,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등 많은 명사들과 기업인들이 군산시를 위해 개인별 연간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미있는 것은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군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했다는 사실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가장 큰 화두인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기부금액은 군산시의 재정을 확충시키고, 지역 내 생산·제조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나아가 문화·예술·보건 및 청소년 육성 등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향후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선한 영향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군산시만의 특별한 계획도 준비중이다.

군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자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의 맛을 최고의 답례품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향 발전에 동참할 수 있고 참여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내가 낸 기부금으로 군산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니, 어찌 참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 기 부 자 개인(군산시 주민 제외, 법인 및 단체 불가능)
- 기 부 액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 기부액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답 레 품 기부액의 30%범위 내
- 문 의 기획예산과 고향사랑기부제 ☎454-2612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바로가기 QR



군산시 홍보대사 김성환

# 지금 우리 동네는



## 대야면, 또 하나의 보물! '만경강 새창이 연꽃마당'

갈대만 무성했던 하천부지가 주민의 관심과 연대를 통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된다.

대야면 복교리 1328-34번지에 위치한 '새창이 연꽃마당'은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만들어 낸 결과이다.

특히 한반도지형을 본따 만든 연꽃마당에 주민자치, 이장단, 학부모협의회 등 9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된다.



## 중앙동, 도심숲에서 즐기는 '우리동네 음악회'

도시재생숲공원에서 9월 14일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다. 공원 곳곳에는 직접만든 핸드메이드 작품, 에코·리사이클링 제품, 아기자기한 소품 등 지역만의 감성이 묻어나는 수제품, 생활용품, 악세서리 등을 파는 플라마켓이 열렸다. 또한 주민자치회원들의 라인댄스 및 색소폰, 클래식, 통기타 연주, 그리고 성산초등학교 학생들의 댄스공연 등이 산책하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 잡았다.

적막했던 원도심의 밤거리가 모처럼 활기를 더하며 주민들에게 가을밤 낭만을 선사했다.



## 수송동, '시민 나눔 놀이터'로 놀러오세요~

수송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축제 '2023 아나바다 장터'가 열린다. 군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자율 기부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0월 6일까지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아나바다 장터에서 만나요!

- ◎ 10.14.(토) 09:00~16:00
- ◎ 수송체육공원 (군산시 보건소 옆)
- ★ 수송동행정복지센터 (☎454-7661~7664,7666)



### 군산흰찰쌀보리로 만든 빵!



어린이리포터 조 울

우리 지역 특산품 중에 흰찰쌀보리가 있습니다.

보리는 아는데 흰찰쌀보리는 뭔데! 해서 찾아보니, '참쌀같은 보리'라고 합니다.(더 어렵다..ㅠ)

찾아보고 찾아본 결과 흰찰쌀보리는 만병통치약 같이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과 함께 밥을 지어 먹을 수 있고, 고추장·된장을 만드는 데 넣기도 합니다. 특히 밀가루보다 훨씬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당뇨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빵을 만드는 데 쓰기도 합니다.

보리맛 나는 건강한 빵이 맛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동안 먹어왔던 동네 빵집 빵이 흰찰쌀보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보리맛이 나지 않은 맛있는 빵인데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많이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시원한 날씨에도 역시 냉면!



어린이리포터 이새찬

올해 여름은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는데, 10월이 되며 서서히 기온이 내려가 시원해지고 있다. 더 추워지기 전 냉면을 즐길 수 있는 시기이다.

군산에는 다양한 종류의 냉면집이 많이 있다.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인 평양냉면집이 있고,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 함흥냉면집도 있다. 칫으로 면을 만들어서 쫄쫄쫄한 면이 특징인 칫냉면집도 있다. 닭으로 육수를 내는 오랜 전통이 담긴 냉면집도 있다.

선선한 가을, 시원하게 냉면을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 정말 맛있는 군산 박대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어린이리포터 모세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초원사진관 등 근대문화유산거리를 걷다 보면 주변에 박대구이라는 식당의 메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대라는 생선은 군산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군산의 특산품입니다. 박대는 생물로 구우면 살이 연해서 꾸덕꾸덕하게 말려 구이식으로 주로 즐겨 먹으며, 또 박대의 껍질을 벗겨 묵으로 만들어 별미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 생선 가시가 쉽게 발라져서 먹기도 참 편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생선을 정말 좋아하기에 많은 사람에게 박대를 알리고, 이 맛있는 생선을 모두가 맛보고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박대가 있는 군산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 시원한 속풀이를 책임지는 군산 월명동 콩나물국밥



리포터 이진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뜻한 국물을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말을 한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국물이 많이 생각난다.

군산 월명동에는 각각의 가게마다 특색있게 끓인 국밥을 맛볼 수 있는 콩나물국밥거리가 있다.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나올 정도로 군산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다.

국밥은 따뜻한 국물과 함께 밥 한 공기만 있으면 많은 반찬이 필요하지 않아도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맛있게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준다.

집에서도 쉽게 끓일 수 있는 콩나물국이지만, 군산 월명동에서 맛보는 시원한 국물의 맛은 쉽게 따라할 수 없다.

군산 월명동에 와서 시원한 콩나물국밥 한 그릇 먹고가랑께~

### 빨간 맛, 매운 잡채!



리포터 이성숙

잔칫날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으로 잡채가 있죠. 하지만 일반 잡채와는 조금 다른 음식이 요즘 군산에서 핫하다는데요~ 군산공설시장 푸드코너에서 먹을 수 있는 '매운잡채'입니다.

잡채당면을 어묵과 채소와 같이 매운소스에 볶은 음식인데요. 더운 여름엔 이열치열로, 추운 겨울엔 추위를 잊게 만드는 음식으로 딱 좋은 메뉴라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장보고 난 뒤 출출할 때 매운잡채 한 그릇!! 매운잡채를 먹고 매울 때 김밥과 따뜻한 어묵 국물 한 그릇이면 세상 부러울게 없는 거 아시죠?

### 시간여행마을, 자루소바 맛집



리포터 임현주

요즘같이 바깥나들이하기 좋은 날엔 군산의 원도심으로 시간 여행을 가보자. 장미동, 월명동, 신흥동 일대는 1900년대 초부터 지어진 근대문화유산과 일본식 가옥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100여 년 전으로 시간여행하기 좋은 여행지이다.

일제강점기 식량 수탈의 거점이었던 아픈 역사를 온전히 담아낸 거리를 거닐다 가슴이 먹먹해지면 시원한 냉소바 한 그릇을 추천한다. 짭조름하면서도 면과 육수가 따로 내어져 나오는 자루소바 방식으로 깔끔하고 덜 자극적인 맛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근처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방문한다면 꼭 한 번 둘러보자.

# 군산시의회, 정부의 무분별한 새만금 예산삭감 및 전북 죽이기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새만금 예산삭감 및 전북 죽이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날 시의회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로 떠넘기고 있으며, 여론몰이로 전라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사업 백지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잼버리 이후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원 중 무려 78%인 5,147억원이나 삭감하였는데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 등은 전액 삭감하였고, ▲새만금 국제공항(580억→66억원) ▲새만금신항만(1,677억원→438억원) 등 반영률이 30%를 넘기지 못했다. 단지 동서도로 자전거도로 사업만 (16억4천만원) 그대로 반영되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여 새만금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 이후 4번째로 1991년 착공 이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에 공항·철도·항만 등 트라이포트 구축이 가시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제야 본격적으로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허브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시점에 정부는 전라북도와 새만금에 분풀이를 대놓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투자 환경 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해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된 사업이지 이번에 치러진 잼버리 대회와 연관이 없는데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에 씌우는 의도는 무엇이며 대회를 개최한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한낱 전라북도에 책임을 떠넘기며 새만금 사업까지 폄훼하고 내년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까지 들먹이고 있어 전북도민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전북 죽이기요, 정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성토했으며, 정부는 단지 잼버리 대회 개최지란 이유로 새만금과 전북에 대한 파상공세를 멈추라고 강력히 촉구했으며 계속 정부가 새만금과 전북을 죽이기에만 급급한다면 군산시민을 포함 180만 우리 전북도민은 새만금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데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단결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전북도민의 생존권과 새만금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위하여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사업 축소를 성토했으며 ▲무분별한 전북과 새만금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180만 전북도민의 희망과 꿈을 가꾸는 땅인 새만금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철회하고 새만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살려낼 것 ▲지역 간 정치적인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 간 화합과 통합을 위한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신공항 조기 착공 등 대통령의 전북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군산시의회, 군산시민과 군산새만금신항·새만금 관할권 사수에 총력!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주최한 군산새만금신항 인근에서 개최된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치러진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군산새만금신항 인근에서 한 집회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군산 어촌계, 항만관계자, 목회자 등 종교단체 지도자 700여 명의 시민과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사수의 뜻을 함께 모았다. 특히 군산새만금신항 인근 해역에서는 군산 어민들이 “군산새만금신항을 지키자”는 등의 현수막을 어선에 부착하고 김제시의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도발을 규탄하는 해상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또한 세종시 정부청사 앞 집회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등 1,100여 명의 시민과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여 행정안전부 제4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맞춰 군산시민들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새만금신항에 이어 세종시까지 와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김제가 무조건 찢어보기식으로 새만금을 김제 관할이라 억지 주장을 하는 데에 군산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동서2축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만은 군산땅이며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 군산시의회, 제 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모저모

### [5분발언]

**박경태 의원은** ▲군산시의 고립·은둔 청년 인구에 대한 실태조사할 것 ▲오프라인 도움창구 운영, 사회관계·일경험·공동생활지원 등 종합적인 행정지원 체계구축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고

**김경식 의원은** 산단과 새만금 등의 이유로 외국인은 늘어날 것이고 계절 근로자 초청, 비자 등 법적 권한의 지자체 이양 기류를 타며 각종 민원과 상담 등을 처리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은 점점 커져갈 것이기에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한 외국인 정책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관련 조례도 무시한 초법적 행정을 통한 개발업자의 이익보다는 보존을 통한 공익의 가치를 생각하며 송풍동 연립부지의 건축허가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하라며 군산시는 고무줄 행정을 중지하고,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으며

**서동완 의원은**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전화 설치 및 운영, 임신·출산 지원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긴급 쉼터 제공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양세용 의원은**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지역민의 생존권과 경제권이 흔들리며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2배, 3배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처할 T/F팀을 운영할 것 ▲방사능 검사 장비 구축과 검사 인력확보 ▲수산물 소비의 위축방지를 위한 수산물 홍보전,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소비 촉진 대책 마련할 것 등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 [건의·결의안]

**한경봉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법안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회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지체없이 가결 처리할 것 ▲정부는 PM 관련 경찰청,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된 업무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서은식 의원은** 화학사고 재발방지와 오염물질 배출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하여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인·허가, 취급시설의 사전 지도점검 등의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 영세 중소기업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을 즉각 시행할 것 ▲도내 화학물질의 56%를 취급하고 이차전지특화단지가 들어설 군산·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윤신애 의원은** 위기를 극복할 새만금권 지자체들의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고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을 위해 전라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과 각 의회는 ▲새만금 SOC 사업 과정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것 ▲새만금 내부 인프라를 둘러싼 관할권 다툼을 중단하고 새만금의 비전과 가능성을 알려 나갈 '새만금 3개 시·군 연합 홍보 TF'를 구성할 것 등을 건의했다.

## 서핑·파도풀·카누를 한 곳에서 즐겨요~



### 무녀도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옥도면 무녀도에 해양레저를 체험하고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는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가 조성돼 군산에서도 체험형 관광을 즐길 수 있을 예정이다.

총 416억원(국비 193억 원, 도비 55억 원, 시비 168억 원)이 투입되는 본 사업은 부지면적 64,365㎡ 규모로 올해 안에 착공해 24년 12월 준공 및 시설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서핑, 잠수풀, 해양테마공간을 즐길 수 있는 '오션에비뉴'와 인피니티풀이 있는 '오션테라스' 그리고 인공파도풀, 레저레이크(카누·카약), 숲속캠핑장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으며 군산시의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으로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T. 454-2813

## 군산~중국 바닷길 다시 열렸다!



### 석도국제훼리, 3년만에 '여객' 운송 재개

군산과 석도를 잇는 석도국제훼리호가 여객 운송을 재개하며 침체된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8월 21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22일 군산항에 입항한 군산펄호에는 70여 명이 탑승, 입국해 모처럼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북적였다.

향후 23년 말까지 2,300여명이 중국 단체예약하며 여객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석도훼리호는 2008년 주 3항차로 취항 후 2018년부터 주 6항차로 증편되는 등 수출·관광의 중심이었으나 코로나19로 20년도부터 여객 운송을 중단하고 화물만 운송했다.

T. 454-2792

## 군산~제주 하늘길 다시 열렸다!



### 군산공항 9월 운항 재개

지난 4월 미군의 활주로 공사로 중단됐던 군산공항이 운항을 재개했다.

현재 1일 2회 왕복 항공편을 운영 중으로 10월부터 왕복 4편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공사 시 제방·빙 시설 공사가 진행돼 동절기 결항률이 낮아져 시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T. 454-3772

## 해외직구 상품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 '군산항 해상특송화물 통관장' 12월말 준공 예정

군산항이 서해안권의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거점으로 육성된다. 정부의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항 해상특송화물 통관장이 12월 말 준공되면,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통관 물량이 분산돼 운송비를 절감하고 배송시간도 단축된다.

T. 454-2795

# 군산토박이의 일상툰

군산시치매안심센터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도와주는  
AI 인형과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호호 할머니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계시다 보니 우울감이 심해지고, 약을 챙겨 드시는 것도 힘겨운 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호 할머니 집에 손자처럼 귀여운 반려 인형이 찾아왔어요.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경증 치매환자, 홀로 사는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AI 인형 무상대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 AI 인형은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 정서, 건강관리를 도와줍니다. 호호 할머니는 이제 깜빡하던 약도 꼬박꼬박 챙길 수 있게 되었어요.



반려 인형의 손과 귀를 누르며 체조, 트로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이용해요. 호호 할머니는 손자 같은 인형 덕분에 외로움을 잊고 전보다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형의 손을 3초 이상 꺾 누르면 보호자에게 전화 요청이 가능합니다. 인형에 부착된 센서로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바로 보호자와 센터에 알림으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요.



군산시치매안심센터  
어르신의 활동은 앱을 통해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 모니터링됩니다.



군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무료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및 분소

치매안심센터	보건소분소	대야분소	중앙분소
나운동 공단대로 482	수송동 군산시보건소 1층	대야면 대야보건지소 1층	중앙로2가 군산노인종합복지관 2층

치매가 걱정되시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찾아주세요!

치매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기억의 끈을 서서히 놓은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군산시 치매안심센터가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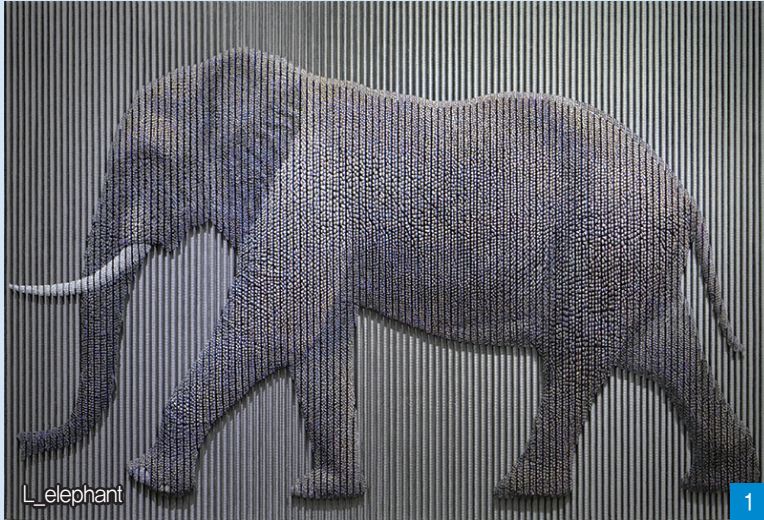
## 정정당한 사회를 위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 『군산토박이의 일상툰』 이야기는 군산시 블로그(<https://blog.naver.com/gunsanpr>)에서 더 많이 만나 볼 수 있습니다.



## 문화 공연 알림



1



2

3

Gunsan Philharmonic Orches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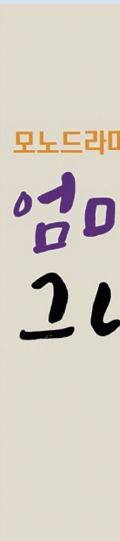
말러 in 군산  
말러 교향곡 "거인"

PROGRAM  
G. Mahler Symphony No. 1 in D Major "Titan"  
말러 교향곡 1번 "거인"

지휘 | 이명근  
연주 | 군산시립교향악단

주최 | 군산시 | 주관 | 군산시립교향악단  
공연문의 | 063)454-5556, 454-5528 www.gspphil.kr

2023. 10.12.(목) 19:30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 1 손석 작가 초대전 「Re-turn」

군산 출신 원로작가 손석 작가 초대전 입체 조각 작품 11점을 전시 중으로 「Le vase Oiseau」 「La scarabée」 「Le vase Moon」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 🕒 9. 19.(화) ~ 11. 19.(일)
- 📍 근대미술관 (구 18은행)
- 💰 무료
- ☎ 박물관관리과 454-7873

### 2 유영주 개인전 「군산 사진으로 그린다」

군산의 아름다운 관광지와 문화재를 보여 주기 위해 과거와 현재, 낮과 밤, 사계절을 카메라 렌즈를 통해 담아 선보인다.

- 🕒 9. 26.(화) ~ 11. 26.(일)
- 📍 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2층)
- 💰 무료
- ☎ 박물관관리과 454-7873

### 3 말러 in 군산 (시립교향악단 제153회 정기연주회)

말러 교향곡 1번 거인(Titan)은 웅장하고 대담한 오케스트라와 가슴 시린 선율미로 고난에 맞서는 용감한 인간을 표현한 작품

- 🕒 10. 12.(목) 19:30
-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 ★ 8세 이상 관람
- 💰 전석 무료
-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56, 5528



옥녀교차로청보리밭



4



5



## 4

### 엄마, 그녀의 계절 (시립합창단 제11회 브런치콘서트)

합창과 연극이 함께하는 모노드라마 형식의 합창음악극으로 자신의 삶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는 공연

- 🕒 10. 20.(금) 11:00
- 📍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
- ★ 8세 이상 관람
- ₩ 전석 무료
-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58, 5528

## 5

### 투기타즈 「박규희 & 박주원」

클래식 기타와 집시 기타의 듀오무대! 다른 듯 닮아 있는 두 기타의 흥미로운 만남!

- 🕒 10. 21.(토) 15:00
-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 ★ 초등생 이상 관람가
- ₩ 전석 1만원 (티켓링크)
-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35

## 6

### 엄쟁이 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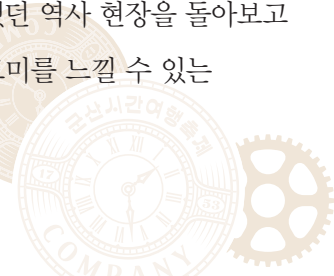
배우 한 사람이 보여주는 15개의 다양한 인생  
그 속에 삶의 지혜와 애환이 담긴 연극

- 🕒 10. 28.(토) 15:00, 19:00
- 📍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
- ★ 초등생 이상 관람가
- ₩ R석 2만, S석 1만 (티켓링크)
-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35



## 군산시간여행, 100년의 味를 찾아서

일제의 침탈과 민족의 항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도시, 군산. 기억의 도시, 근대 군산을 통해 가장 치열했던 역사 현장을 돌아보고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여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군산시간여행축제로 지금 함께 떠나보자!



### 시간여행 퍼레이드



- 🕒 10.6.(금) 18:30~19:00
- 📍 해망굴~구시청광장

### 개막공연



- 🕒 10.6.(금) 19:00~21:00
- 📍 구시청광장 메인무대

### 근대 떡방 300



- 🕒 10.7.(토) 13:00~15:00
- 📍 대학로 스트릿마당

## 교통통제 안내

시간여행축제 기간 거리축제장 조성으로 인해 대학로 일부구간 교통이 통제됩니다.

**기간** 10.6.(금) 00시 ~ 10.9.(월) 밤12시

**통제구간** 구시청사거리 ~ 내항사거리 (대학로)

**우회도로** 중앙로 (구시청사거리 ~ 해신동주민센터 ~ 해양경찰서)  
죽성로 (구시청사거리 ~ 가구거리 ~ 짬뽕선창삼거리)  
※ 우회도로변 주정차금지 협조



## 시민주도의 생명력 있는 축제

올해 11회째를 맞는 시간여행축제는 근대 군산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체험이 어우러진 지역공동체 축제이다.

## 화려한 서막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쇼와 흥을 돋우는 EDM 파티를 즐겨라!

또한 100인의 타악 퍼포먼스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여행 퍼레이드도 놓칠 수 없다.

## 군산시간여행, 100년의 맛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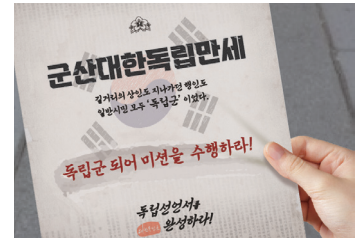
근대 시기에도 먹었다는 주먹밥에 군산특산물 울외장아찌를 넣어 300인이 주먹밥을 만든다면? 그 맛이 궁금하다면 10월 7일 (토) 13시 대학로 스트릿마당으로!

- 홈페이지 : 군산시간여행축제 festival.gunsan.go.kr
- 문의전화 : 454-3304



## 상설 프로그램

### 군산대한독립만세



### 군산공룡대탐험



## 우리모두 3.5만세



- 🕒 10.7.(토)~10.8.(일) 15:05
- 📍 대학로 스트릿마당

## 시간여행콘서트 '추억'



- 🕒 10.7.(토) 16:30~18:00
- 📍 구시청광장 메인무대

## 짬뽕 페스티벌



- 🕒 10.7.(토)~10.8.(일)
- 📍 짬뽕특화거리

#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

10.6.(금) 15:00 ~ 10.9(월) 군산시간여행 마을 일원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군산  
“모두 함께 떠나는 군산으로 시간 여행”